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9일(목) 제 3014호

전북상의 2025 신년 인사회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2025년 신년 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道, 문화·관광 융합 특구로 글로벌 허브 도약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④ 문화산업·산악관광 등 문화·관광분야 특례]

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 본격화…K-문화산업 부흥 견인

산림 규제 완화로 산악관광 콘텐츠 활성화 모색…동부권 성장 동력 확보

문화산업진흥지구, 창의적 문화 생태계 조성 중심지 도약

구랍 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의 문화·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포함한 지역별 특화 전략이다. 각 지구는 전북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관광 산업의 가치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편집자 주〉

▲창의적 문화 생태계 조성의 중심지로 도약

전북자치도 문화·관광 분야 주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 △야간관광산업 육성 △국제회의 산업 육성 특례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북이 문화와 경제를 융합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주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한스타일, 실감 콘텐츠, 근대문화, 공예 등을 특화 자원으로 삼아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이다.

▲산림 규제 완화로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산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이 지구는 산림 치유, 레저 스포츠, 모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별법의 규제 완화로 리조트, 산림 레포츠 시설, 산장 호텔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의 길이 열린다.

▲고군산군도 중심, 해양 역사·문화 국제적 거점 조성

전북 서해안권 및 새만금지역은 수중유물이 집중 매장된 해역으로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연구·전시 등을 위한 국제교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로 예정된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지정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구 내에는 수중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수중교육훈련, 유물 보존 연구, 전시 및 보존 작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케이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야간관광산업 육성 특례로 도내 야경 명소를 발굴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환황해권 국제회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올해 문체부 예비국제회의지구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구가 활성화되면 도가 추진 중인 2036년 하계올림픽과 시너지를 내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와 한류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전북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 꿈꾼다

26년 새만금 크루즈 유치 지역관광·경제활력 강화

테마브랜드 발굴 등 민관협업 기반 크루즈산업 본격 육성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 협약도 이미 맺어

전북자치도가 크루즈산업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미래먹거리의 새로운 기회이자 관광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크루즈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포트세일 등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권역 크루즈선 기항지 확보전략, 크루즈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본구상 제시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9월 완료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진행될 용역에서는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기항지 도약 및 관련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새만금청이 크루즈산업에 뛰어든 것은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크루즈선사연합(CL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크루즈 산업의 파급효과는 생산량 1억3천760만 유로, GDP 6천890만 유로, 고용 121만명, 총임금 4천280만 유로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크루즈 관광객 1인 소비동향 및 1회당 기항객수를 조사한 '크루즈 실적 발표 자료(2023.07)'에서도 최근 5년(2016-2019, 2023) 1회당 평균 기항객수는 1천367명으로 집계됐으며 1회 입항 당 승객이 지출하는 직접 지출액은 65만7천855달러(9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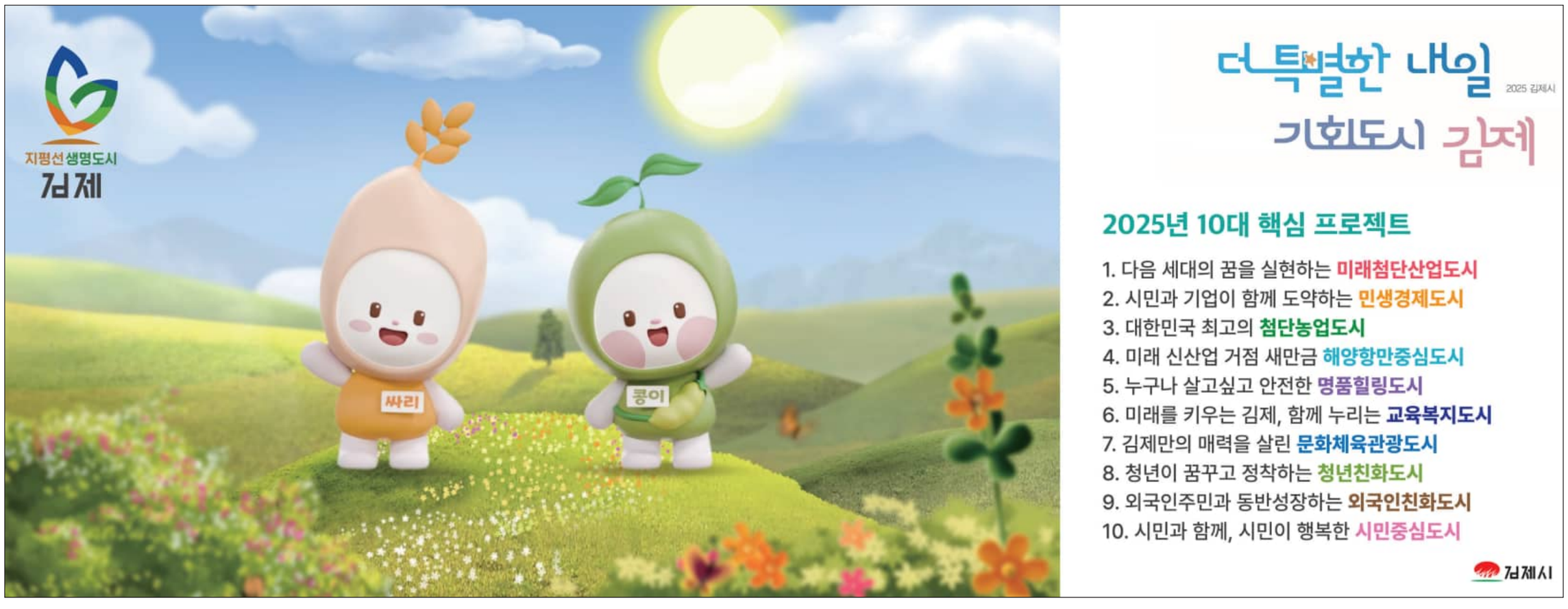
이 같은 크루즈산업은 크게 관광과 해운·항만·조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11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균형발전을 통한 가치사슬체계가 형성돼 있는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항지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 아시아 유명 기항지들과 비교적 가까워 크루즈 노선 창출의 적지로, 대한민국의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력 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부두 개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8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예정된 용역 추진도 서두를 계획이다. 동시에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항지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새만금 및 근교도시 숙박·관광콘텐츠 확충과 함께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쇼핑시설 유치도 논의된다.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외연도 확대한다. 국제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크루즈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프린세스, 코스타, 팬스타, 롯데JTB 등 관련 선사 및 여행사와 새만금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9일 목요일

道, 공공가치 창출 위한 경영평가 기본계획 확정

올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공정성·투명성 강화…평과결과 검증체계 강화·등급결정방식 등 개선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올해 전북자치도 경영평가 기본계획은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후속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가 대상기관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개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준해 경영효율화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 경영평가 결과보고 과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평가결과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세부점수 대외 공개·평가등급 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올해 경영평가 기본계획에 담아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검증단 단원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총점과 등급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영평가 결과 세부 점수를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평가등급 결정방식도 개선했는데 그간 기관 성격에 따라 유형별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나, 올해 평가부터 I유형·II유형 기준을 통일하고 기관의 경영평가 수행능력을 고려한 기준(92점 이상 '가' 등급, 등급별 5점 간격)을 설정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기업·출연기관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행안부 발표 '2024년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우수

범죄 등 3개 분야 우수…"시군,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해 안전지수 개선 노력 할 것"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 전북자치도가 5개 분야에서 3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 중 3개에서 우수 등급(1~2등급)을, 2개 분야는 보통(3등급) 등급을 받아, 전국 9개 광역도 중 두 번째로 고른 지수 등급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염병 등 2개 분야는 전년 비 1단계 상승했고 범죄, 생활안전 등 3개 분야는 1단계 하락했다.

또한, 도내 시군의 경우 군산시가 2년 연속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군은 범죄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다만, 화재 분야의 경우 23년 화재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도는 안전지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수 개선 컨설팅 및 시설개선사업 등 2개 중앙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다.

위해요소 저감사업 발굴·추진, 유관기관 및 시군 실무 TF 회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청 실무교육 등 지역안전 지수 향상과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도는 앞으로 화재 분야 등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해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모든 도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12월 지자체별 6개 분야의 사망자수 등의 지역 통계를 분석한 후 5개의 지자체 유형을 나누어 상대평가 방식으로 측정 결과(1~5등급)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김관 기자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박희승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 이용률도 회복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다.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과 주민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 준공

1전북자치도 장수군 소재 동물위생시험소는 부지 내에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도 취급이 가능한 '생물안전연구동'을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시설은 사업비 총 75억원을 투입, 연면적 947㎡,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2월 착공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부검실, 사무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췄다.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고 실험하는 물리적으로 밀폐된 시설로, 향후 질병관리청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시설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인프라를 구축한 생물안전연구동의 인증을 통해 정밀검사 환경이 크게 개선돼 도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생물안전연구동 준공을 계기로 효율적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질병관리청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과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전북컬링팀 감독·선수단 격려

전북자치도는 8일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도청 컬링팀 선수들과 지도자를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은 2024년 국내외 대회에서 8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권영일 감독이 이끄는 선수단은 스킵 강보배를 비롯해 김지수, 김민서, 심유정, 이보영 선수로 구성돼 있다. 도청 컬링팀은 오는 2025년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전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도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기원 공모전 열어

당선작 21점 전시해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의지 확산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전북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상상하는 올림픽의 모습과 전북 유치를 향한 열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며 아동·청소년이 상상하는 올림픽의 모습'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올림픽을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자치도가 주관하고, 전북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자치도체육회, 전북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은 초등부는 8절 도화지, 중·고등부는 4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오는 24일까지 대외협력TF(280-4134)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미술·체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 주제 표현력, 창의성, 작품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각각 7명씩 총 21명의 작품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이 수여되며, 선정된 작품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가 선정되는 2월 28일까지 도청 로비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해 도민들에게 전북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올림픽 유치를 향한 열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석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그림 대회를 넘어, 전북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의원, "산지은행 통한 임업 정책 새로운 물꼬 터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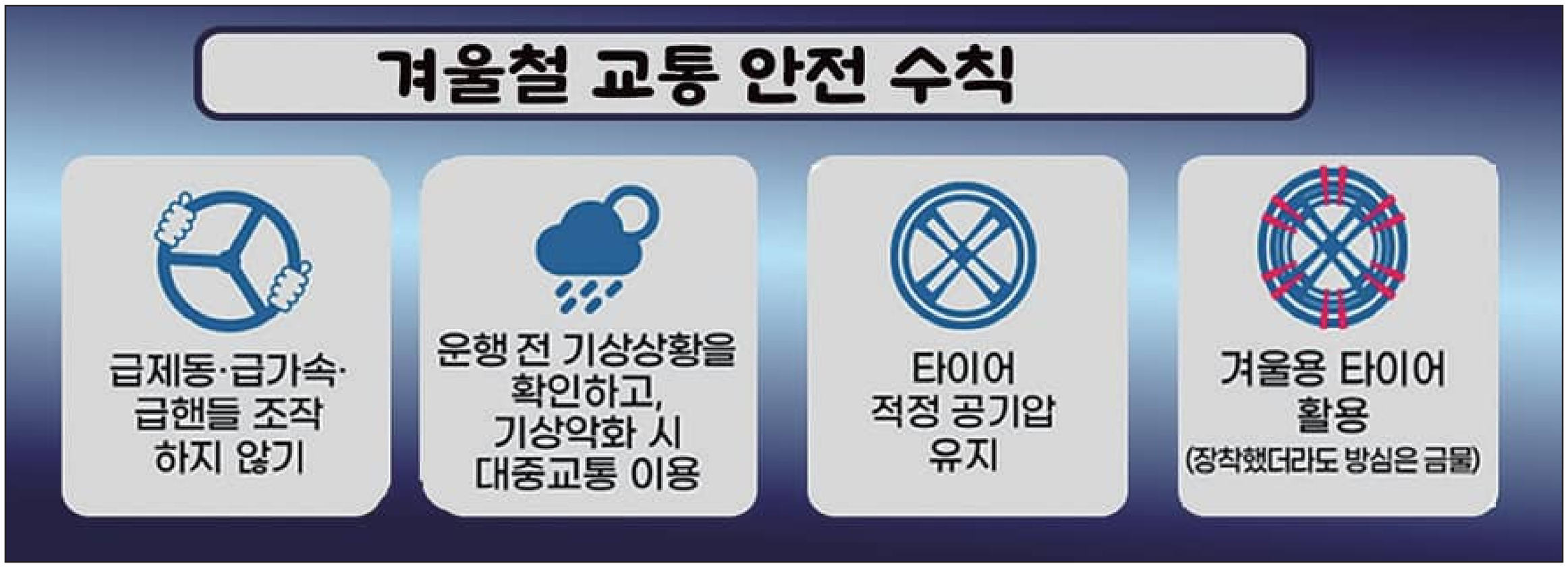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규모·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의 규모화, 집약화를 통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시, 대변혁…5개 분야·27개 사업에 1289억원 투자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착공 등 시민 체감 변화 이끌 계획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전주 대변혁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 100만 광역도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든든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 도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길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시청 4층에서 2025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 비전 아래 미래 ▲민생 ▲도시 ▲경제 ▲문화 ▲복지의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 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젊고 강한 전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래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이다.

먼저 시는 소비 진작 및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128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기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1700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300억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등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동시에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을 위한 필수요건인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통합시의 비전과 완주·전주 상생방안 등을 제시해 시·군간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지방정원 조성, 친환경 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분양과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강소기업 유치에 힘쓰고,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첨단 모빌리티 분야 국립전주전문과학관 건립 ▲전주 AX 퓨처밸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청년이 도시의 미래'라는 모토 아래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전주형 만원주택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K-컬처 기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주의 역사문화자산을 재창조해 문화산업으로 엮어내기 위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쿠뮤필름 아시아 제2스튜디오 조성 ▲K-한지마을 ▲음식관광창조타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등에 속도를 내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전주지방정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등 4대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한옥마을 관광객이 도시 전역을 누빌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전주 대변혁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전주함께라면'과 '전주함께라떼&북카페'를 운영하고, 촘촘한 전주형 함께 돌봄 복지안전망 구축과 대한민국 제일의 치매안심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이는 등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10대 프로젝트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4대 관광지(아중호수, 덕진공원, 완산칠봉, 모악산) 조성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 구축 ▲K-한지마을 조성 ▲전주드림랜드 현대화 ▲미래 농업 클러스터 구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 경제의 패러다임과 도시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대변혁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20~30년 후에는 전주의 찬란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2025년 새해에도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 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젊고 희망찬 전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 대설 경보 속 대책회의 열어

선제적 제설작업 안전관리로 피해 예방 철저 지시

전북자치도는 도내 전역에 지속되고 있는 강설과 한파, 강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8일 오후 4시 도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도내 서해안, 남부내륙 시군의 대설 경보 예보 등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유관부서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각 시군과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그간의 대설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에도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관련 부서와 시군에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등 붕괴 위험 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읍면동장 책임하에 안전조치 및 선제적 사전대피 등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출근 시간 이전 주요 간선도로, 고갯길 등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실시해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이 함께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온 하강 및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난방상태 확인 등 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겨울철 도로 미끄럼 사고와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 요령을 준수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와 난방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20일까지 880여 명 대상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주지역 농업인과 귀농인, 청년 농업인 등 8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별 최신 영농기술뿐 아니라, 변화된 농업정책과 제도, 농업 관련 주요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농업인들과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는 품목별 농업인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농업정책과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식량 분야(벼, 콩, 감자), 원예 분야(고추, 마늘, 양파, 복숭아, 배), 기타 분야(기후변화대응, 농산물안전사용, 농업인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및 GAP교육 등) 등 3개 분야 12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농업 소득을 증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로운 성장 기회 창조…100만 광역도시로 대전환 '속도'

강한 경제 일자리도시·K-컬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신바람 복지도시 구축 '총력'

전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주의 큰 꿈을 위한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추진키로 한 것은 경제 위기의 파고를 견디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조해서 전주 대변혁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경제가 살아야 전주가 산다'라는 절박함으로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 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미래 100만 광역도시 전환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준비해온 비전과 계획을 한 걸음씩 실행에 옮겨 시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2025년 전주, 민생경제 회복·시민 안전 '방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어진 기나긴 경제 위기로 인해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섰다. 이에 시는 빠르고 강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289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해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로 했다.

먼저 시는 차갑게 식어버린 소비 진작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올해 1분기에만 900억 원 규모로 집중 발행하는 등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소비 진작과 더불어 시는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기존 1700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과 이자를 지원하고, 184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드림축제 추가 개최 ▲전주맛배달 할인 이벤트 확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상향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착한가격 업소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위기가구 긴급지원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재난상황실을 기반으로 상시 디지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산지구와 공덕지구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계절별로 재난 취약지역과 다중 밀집 지역 등 사고 우려 시설 및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별·상황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확실한 변화로, '미래로 가는 길' 연다!

시는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더불어 미래 '100만 광역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미래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 한해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공사에 돌입하고,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과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천마지구 도시개발, 낙수정·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도 속속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심야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 친환경 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탄소·수소·드론·첨단바이오산업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분양을 앞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과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공을 들인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정착하고 싶은 젊고 희망찬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지역정착 지원 ▲청년활력수당 ▲청년 함께 두배적금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출향청년 전주기업 취업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취업 2000 ▲청년 면접정장 대여 ▲교통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맞춤형 청년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시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와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전주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확대'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누구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가장 필요한 순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바람 복지도시를 꿈꾸고 있다.

먼저 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K-컬처 기반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전주부성 복원 및 전라감영 복원 등 전주의 역사문화자산을 재창조해 문화산업으로 엮어내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토대로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 조성 ▲쿠뮤필름 아시아 제2스튜디오 조성 ▲K-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전주에서 독립영화부터 헐리우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촬영이 이뤄지는 글로벌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는 K-한지마을을 조성해서 전주한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한식과 한복 등 한문화를 전주의 상징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음식관광창조타운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등 K-컬처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올해 ▲전주 지방정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한빛마루 공원 등을 시작으로, 완산칠봉·아중호수·덕진공원·모악산 등 4대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체류형 관광도시라는 꿈을 키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바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 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복지관 '전주함께라면'에 커피와 책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주함께라떼&북카페'를 더해 확대 운영하고, AI를 활용한 단수·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위험군 관리, 한의치매예방 서비스 등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와 더불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배회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 확대 ▲전주형 치매환자 돌봄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대한민국 제일의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간다.

여기에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등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전주 곳곳에 확충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해에도 민선 8기 전주시는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로 다시 서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와 우리에게 그 저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도전하겠다는 실천적 행동으로 우리 함께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교통 시설물·다중 이용 교통시설 점검 추진

전주시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 시설물과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호제어기 ▲LED 신호등 ▲음향신호기 ▲버스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역·터미널 ▲공영차장 ▲자전거 대여소 ▲버스 차고지 교통 기반 시설물 3만6381개와 65개 시설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 및 유지관리 상태와 시설물 결함·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전북상공회의소, 신년사 및 경제대상 시상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 회장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

대상 '김용현 (주)정석케미칼 · 문형태 (주)신한방직 · 김상용 (주)선진공업 대표이사' 각각 수상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신년인사회 및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지난 8일 호텔라한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등 도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계 대표와 지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현 대표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전주상공회의소 사자성어로 선정된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펼쳐진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의 뜻처럼 우리 앞에 닥친 경제상황이 밝지는 않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전북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했으며, 김정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전주상의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미래 100년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역할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등 지역 현안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상공인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슬로건으로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용 대표

아울러 신년인사회와 병행해 실시한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이사, 본상 기업 부문은 신한방직 주식회사(대표이사 문형태), 경영인 부문은 선진공업(주) 김상용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준호 기자

평균연봉 1억 현대차전주공장, 신규 채용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및 유틸리티 관리 등 3개 부문

현대자동차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기술인력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R&D 유틸리티 관리 등 3개 부문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모집 부문별 세부 요건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합격자는 2월 중순 발표하고 2월 말 인·적성 검사, 3월 1차 면접, 4~5월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5~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6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생산 현장에 배치한다.

R&D 기술인력, R&D 유틸리티 관리 부문 합격자는 6월 중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 배치한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온·오프라인 청구·처리, 제도운영 등 최고 점수 획득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전정보 공개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점수는 96.6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1.11점보다 5.52점이 높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 보유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라중 재개발 추진위 "정비업체가 선거업무 개입했다"

"정비관리업체 선거업무 중단해야"… 조합원 이익 대변하는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 공정 선출 기원

전라중 일원 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선거업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가 만든 선거관리 규정에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돼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조합원) 등에 따르면 전라중 추진위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 제정과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한다.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추진위는 외부 세력이 조합장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을 위해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거업무가 시작되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선거관리 규정에 적시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모른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진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시작됐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전전에 나서고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전체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부사장이 대의원 후보 접수를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관리를 비롯해 모든 절차 진행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중립성이 훼손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이 선결돼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3억원이 소요되는 창립총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라중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들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창립총회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길 기원한다"며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업무를 중단해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과 선거관리위원장 재선출해 창립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사실확인을 해보니 일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6일 선관위원장이 자진사퇴했다"면서 "또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선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다만 처음 해보는 업무다 보니 자문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결과 선거관리위원 2명만으로도 조합장 선거를 개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석인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오는 16일 추진위 소집 공고를 냈으며 이후 공고를 통해 총회 전까지 선관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업무에 관여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설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일부터 24일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에는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8일(수) 이정환 총괄본부장, 김삼형 전북검사국장은 합동으로 농협전주유통센터(지사장 유경근)를 찾아 농·축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위생 취급기준 ▲식품보존·보관기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명절동안 증가하는 식품 수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 할수 있는 농축산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과 해양수산분야 한 단계 도약 발판 마련

새만금 투자환경 조성 지원 및 안정적 수질 확보 달성
새만금 산업단지 3·7·8공구 조기매립 적극 추진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사업 규제 특례 승인 및 소규모 실증 개시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을 활용, 새만금청 자문단과 매칭한 5개 분과위를 신설·변경 및 확대 운영해 전북도 제안사업 35건을 발굴·건의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확정될 때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MP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과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개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용지 신속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준공했고 3·7·8공구는 조기매립 추진 중이다.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단계(2.7㎢) 조성 공사가 추진 중이다.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청, BS산업 등 민·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수질개선대책 이행 내실화를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24년 64개 사업에 1천10백억을 투자,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 4년 연장 및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분야 전북형 특례 조례 제정을 위해 그간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을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었으나 수산분야 특례 반영으로 그 권한을 도지사에 위임,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 1천720ha에 걸쳐 85건의 면허가 혜택을 받게 됐다.

새만금 신한 개항을 위해 24년 1천628억을 투입, 북측방파호안 준공, 북측 진입도로 착공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천382억의 예산을 투입, 지속적으로 항만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운영으로 군산항을 이용하는 특송화물 처리 건수는 23년 160만 건에서 24년 539만건으로 2백37% 증가해 물류비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 등 연간 185억원의 경제효과와 1백여 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았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국회 감액예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나름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폭설 대응 긴급현장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새만금청)은 8일 내린 폭설에 대응해 새만금 지역 내 건축현장, 시설물 등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에 누적 적설량 8.9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새만금청은 비상대응체계를 발동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에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새만금 건설현장과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하차도 및 램프구간 등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내 사업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2025년 고향사랑기부도 전북농협과 함께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8일 2025년 을사년 첫 정례조회와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농협은 올해 타지역 교차기부, 출향도민대상 홍보강화, 지역 우수 농축산물 및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환총괄본부장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을 살리고, 농축산물 답례품으로 농민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지역대학들, 등록금 인상 놓고 '고심'

수도권 대학 등록금 인상에 도내 대학 총장들 고심…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에 운영 어려움 호소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전북의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을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 지역대학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학교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수도권의 일부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26일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도 지난 2일 4.97%를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전북대는 이달 중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대의 경우 외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은 인상을 할 계획이고, 아직 국내 학부생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대는 2012년부터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이달 중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자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규정상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해 '국가장학금 유형2'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등록금 인상 규모를 비교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들의 인상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IB 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올해 60명 선발… 위탁대학 협력 통해 프로그램 질 높여 전북교육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토론과 탐구 중심의 IB 교육 운영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IBEC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IBEC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 즉 IB 교사 자격증으로 IB 본부(IBO)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4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북 1기 IBEC 과정은 IB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수업 및 평가 혁신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또한 IBEC 이수 교사들은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의 IB 프로그램 도입·정착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고, 위탁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체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이수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IB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IBEC 과정은 수업-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IB 운영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CES2025 참가해 전북권 대학 첨단 기술력 선보인다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과 공동으로 전시 부스 운영… 동물 조기 암 진단 장치 등 출품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전북권 대학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북대를 비롯해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LINC 3.0 사업 참여 대학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각 대학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대는 ▲광학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동물 조기 암 진단 장치와 ▲저탄소 축산 지원 플랫폼인 '카우카본', ▲AI 기반 계란 암수 구분 장치, ▲포터블 미세액적 제조 기기 '마이크로체인저블', ▲비상용 모바일 자가발전 모듈 'Linkie' 등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대학들의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실증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CES 2024에 이어 올해도 유레카파크에 다수의 기술 기반 제품을 출품하며 글로벌 기술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심화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 아이의 손도 놓지 않는 전북 기초학력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와 현장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30시간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난독·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지도 전략을 알차게 담았다.

특히 난독·경계선지능 의심학생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중재교육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수법도 포함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립여성중고교, 신입생 모집

19세 이상 성인 여성 대상, 중 · 고교 정규 과정 제공

전북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성인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중학교 과정 30명, 고등학교 과정 30명으로 총 60명이다.신청 접수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자격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요구된다.

지원자는 도립여중고 교학관리실을 방문,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비와 급식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전형 일정과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jbwss.sc.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개교 이래 도립여중고는 총 1천6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늦깎이 학생들에게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정소민 기자

호원대, 군산시 지역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 행사 개최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 프로그램 오프닝 행사

호원대학교가 지난 7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 프로그램 오프닝 행사와 1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 프로그램은 호원대학교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군산시 교육지원과가 함께 주최하는 '군산시 K-컬쳐'의 청소년 교육의 일환이다.

오프닝 행사에는 호원대학교와 군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진과 조교진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호원대학교는 문화예술인재 양성교육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될 예정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뮤지컬은 각 분야의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된 교육 전문 팀이 군산지역의 다문화 및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중 팝컬(쥬크박스 뮤지컬)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과정, 드론촬영과 영상편집 등 디지털 영상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실용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새롭게 구축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학교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학교안전교육, 사고 조사 및 보고 등으로 분리돼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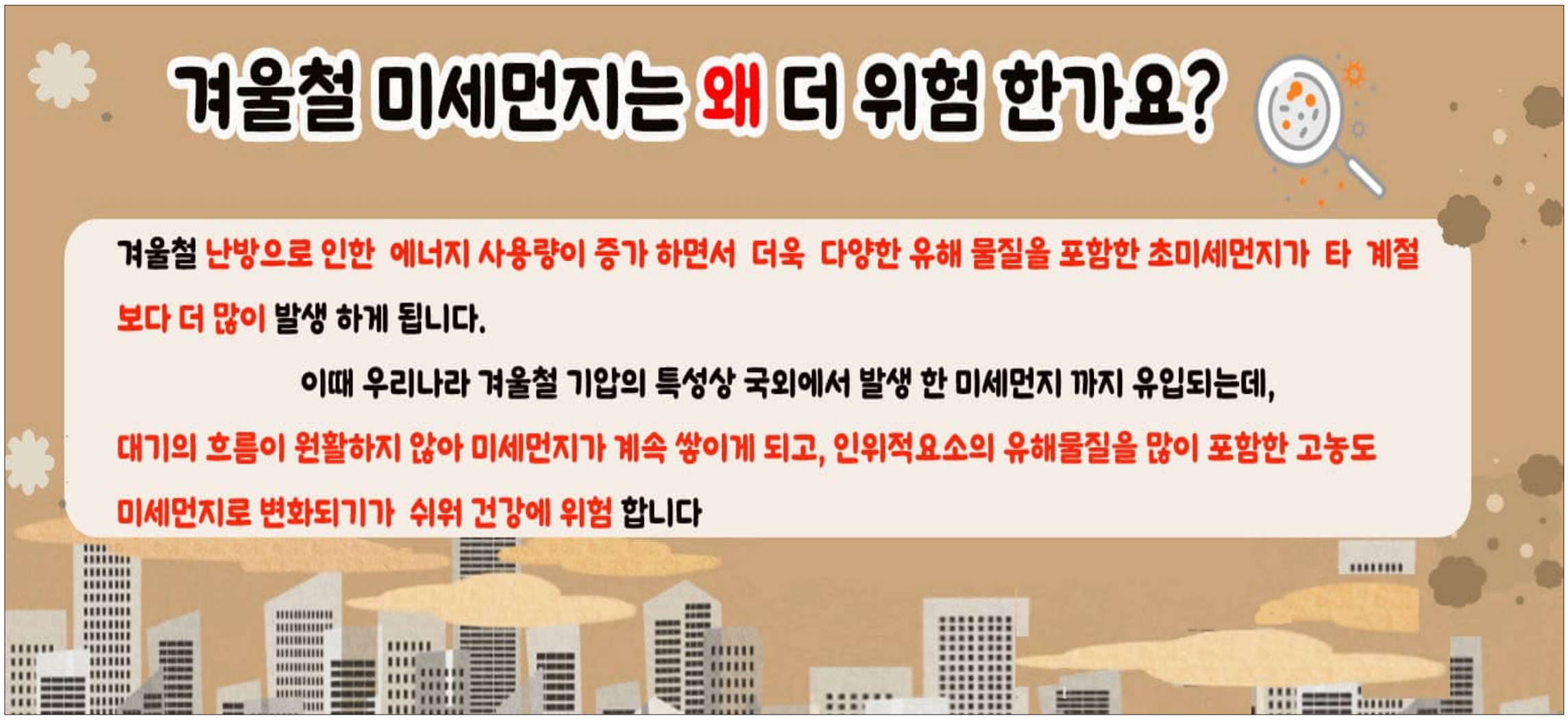
학생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 각급 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1040여 명이 참여하는 이 연수는 8일부터 17일까지, 2월 10일부터 3일까지 총 12기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매뉴얼 활용 및 실습 ▲학교안전계획 작성법 및 실습 ▲학교안전사고 사례 및 통계 분석 ▲학교 마약 예방 교육 등이다.

연수를 바탕으로 각 학교는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학교 관련 자료들이 학교안전교육 계획에 자동으로 입력돼 학교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 구성원의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정읍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20% 할인 혜택 새해 이벤트

정읍 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을 위한 파격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대 20% 상당의 할인 혜택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희소식을 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정읍시 핵심 공약 사업인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2023년 5월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주문 21만 9000여 건, 누적 매출 54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1분기 동안 위메프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프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매일 최대 2000원의 배달료 할인 쿠폰, 전통시장관에서 최대 4000원의 배달비 할인, 결제금액의 1% 페이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기존 10% 선할인에 추가로 결제 금액의 10%를 페이백 포인트로 적립 받아 총 20% 상당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제부터 반값 기차 타고 정읍 여행 즐겨요!"

이달부터 '정읍 반값 기차여행 시대'가 시작된다. 철도 운임의 최대 50%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정읍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부터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의 50% 상당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읍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코레일 웹사이트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카테고리를 선택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정읍 왕복 승차권(당일/1박 2일/2박 3일)을 구매하고 ▲정읍의 인증 관광지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QR 코드를 인증하면 된다. 이후 구매 운임의 40% 상당 할인 쿠폰을 다음 달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새해에도 이어지는 배움의 즐거움

익산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겨울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익산시평생학습관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겨울학기'를 운영한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교육 ▲원데이특강 등 5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능력 분야에서 '한글 문서작성' 등 2개 강좌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캘리그라피', '여행드로잉' 등 4개 강좌를 진행한다.

인문교양 분야는 '원어민과 초급 영어회화' 등 2개 강좌와 시민교육 분야는 '웃음치료의 힘' 등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원데이특강인 캔들만들기는 야간강좌로 진행된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iksan.go.kr/lll)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82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 본격

1조 6775억 2311만원 추경 확정… 사랑상품권 판매 및 소비 촉진 대책 호응 기대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군산시의 지역 소비진작 및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군산시의회는 시가 요구한 올 본예산 대비 228억4971만원(1.38%)이 증액된 1조6775억2311만원을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200억원이다.

반면 세출 예산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14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4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향후 세출 예산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총 5개의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발행액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 ▲월 구매 한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즉시 적립(월 최대 2만 원)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5일 기준 198억이 판매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과 카드를 통해 결제했을 때 즉시 캐시백으로 적립되어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 전액 판매를 목표로 잡았으며 관련 소비 촉진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확대 ▲소상공인 지원사업(임대료, 카드수수료, 융자지원) 신속 추진 등 추가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보건·의료분야 국비 136억 원 확보

모아복합센터 건립,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등 사업 추진

익산시가 2025년 보건·의료분야 국가예산 136억원을 확보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빈틈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모아복합센터 건립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모기 발생 감시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모아복합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임신·출산·보육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9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난임부부·맘's 클리닉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아이발달 지원센터 ▲육아 대디(daddy) 센터 등이 설치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의료전달체계 강화에도 힘쓴다.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응급실 전담 인력 보조금을 지원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야간·심야약국을 운영해 늦은 시각에도 시민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농촌지역 의료기관 기능 심화에 나선다. 우선 황등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해 주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안·용동·삼기 보건지소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노후된 보건 의료 장비를 교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올해 질병관리청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지원을 받아 9개소에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 시는 수집된 모기 발생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제활동을 진행해 관련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소아 진료실을 운영해 야간·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과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강설 속 제설작업 총력…긴급 대응 '이상 무'

비상 재대본 1단계 근무 명령 소집… 제설 장비 13대 동원, 주요 취약 구간 등 24개소 제설작업 실시

익산시가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등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104명 비상근무)를 소집하고, 제설작업에 가용 행정력을 모두 집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익산에 내린 평균 적설량은 7.2㎝로 집계됐다. 오산면(11.4㎝)과 동산동(10.3㎝), 춘포면(10㎝), 영등2동(9.4㎝), 황등면(9.4㎝)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나온 전날 오후 4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한 제설 장비 13대와 제설재 등 자재 330톤을 동원해 24개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익산역 서부광장, 왕궁면 익산 나들목(IC), 평화육교, 춘포면 금강교, 모현교 등 얼어붙은 주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 출근길 교통 혼잡을 예방했다. 시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전 상황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이어지는 한파 속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나온 전날 오후 4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정헌율 익산시장이 긴급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군산시, 대설·한파 속 폭설 대비 '총력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설경보 발효 즉시 2단계 가동… 재난안전문자발송 등 선제대응

전북에 오늘까지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되면서 군산시 재난안전본부가 24시간 대응 체계로 전환, 시민 안전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현재 군산시는 대설경보에서 대설주의보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8일 오전 8시 군산시 평균 신적설량은 13c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회현면으로 19.1cm로 나타났으며, 옥산면(17.4cm), 옥구읍(16.9cm), 대야면(14.9cm), 조촌동(14.8cm)이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즉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8일 오전 2시 30분 대설경보가 발효되면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내 주요도로 제설작업 현황 및 도로 순찰 ▲노후주택 등 적설취약 구조물 및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관리 ▲역전, 명산, 신영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시설물 점검 ▲시설하우스, 노후 축사 등에 대한 사전 대책 ▲육상 내수면양식시설 안전관리 추진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대비시설 안전관리 등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인터뷰>

최정호, 익산 품 속으로 24시간 달린다

전 국토교통부 차관, 2026 익산시장에 도전

최정호(67)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는 2026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작년말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에서 사퇴했다. 최 전 차관은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잘먹고 잘사는 익산'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익산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도심 항공 교통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최 전 차관은 전라남도, 광주, 새만금, 전주, 충청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도권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에어 허브'를 조성해야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전북개발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기업의 수요와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관은 익산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버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익산 지역 건축물을 개발하여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실버산업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의 마음 속으로 뛰어 들겠다"며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익산은 전북 특별자치도 교통의 중심지"라며 "이러한 익산의 강점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익산'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을 살려 익산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시키고 싶은 바람"이라며 "국토교통·도시 경영전문가로서 정책 능력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군산시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 식품관리 분야'에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기업육성 분야' 우수기관표창(군산시)에 연이은 수상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관리 유공 정부 포상'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관련 협회 등 단체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군산시 박동래 과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 ▲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 종합단지(4만평 규모)' 조성 및 민간 기업 유치 등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군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시민 건강·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총력을 다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신축이전 후 재개장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등은 '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투명 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기초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94.05점을 기록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89.79점을 크게 상회한 94.05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건강증진사업 성과 도내 최고 인정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익산시 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익산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2개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주민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터 중심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첫삽

드론산업 거점으로…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기공식 열어, 내년 5월 완공 계획

드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드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성내면 조동리 145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 및 군의원,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산업과장, 한국교통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장, 성내면 이장단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75억원을 투입해 8만9560㎡(약2만7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비행시험을 비롯해 드론자격, 드론교육을 진행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와 활주로(200m×20m) 및 88m×40m 규모 4면을 갖춘 실기시험장을 2026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

센터는 건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자격시험 인원만 1만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창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시정,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

김제시, 24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참여 시민 공개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에 함께할 시민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책연구모임은 시책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발굴한 연구과제를 공무원과 함께 수행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시책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분야는 ▲성장도시 기반조성 ▲인구성장 초석마련 ▲농업수도 위상확립 ▲민생복지 경제활력 ▲세계축제도시도약으로 민선8기 시정방침에 부합한 과제 중 자유주제다.

참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내달 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향후 시책연구모임 연구과제 평가 결과, 우수 연구과제는 김제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우수상 1개팀에는 300만원, 우수상 1개팀에는 150만원, 장려상 3개팀에는 각 50만원씩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지역 사랑을 듬뿍담은 아이디어가 시민들이 바라는김제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민생경제 회복 정책 최우선 추진

부안사랑상품권 100억원 확대 발행,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최선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자금 역외유치 방지 및 지역내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부안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했다.

올해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지난해와 같은 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지난해 매월 20억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 3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립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가 대출이자 지원과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확실하고 든든한 민생안정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폭설 속 피해는 없어…비상 상황 대응 근무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지난 밤 평균 9.9cm의 눈이 내렸지만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김제에는 평균 9.9cm의 눈이 내렸다.

시는 지난 밤사이 재대본 비상 1단계를 내리고 밤새 비상상황에 총 80명이 대응했으며 새벽 2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대설 경보에 따라 비상 2단계를 내려 근무했다.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상황은 없으며 모안산 탐방로 5개소는 통제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전북지역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직장운동경기부 남자유도팀 창단

"선수들 체계적인 훈련 지원할 것…지역 스포츠 발전 박차"

부안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남자유도팀을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창단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군민들의 체력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 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남자유도팀 창단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군의 스포츠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부안군청 남자유도팀은 초대 감독으로 고자람 감독을 비롯해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 이은결(남자 73㎏급) 선수와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이 화려한 김재윤(남자 100㎏급)·김영웅(남자 66㎏급)·여예준(남자 100㎏급)·최도훈(남자 100㎏급)·송광일(남자 60㎏급) 선수 등 7명 규모로 구성됐다.

군은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해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남자유도팀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인도형 제설작업 본격 추진 '호응'

고창군이 면지역 전체에 인도형 제설기 13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인도형 제설기는 지난해 고창읍에 시범적으로 3대가 보급돼 눈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고창군은 선제적 제설작업을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9개반 21명의 제설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9대의 덤프차량과 마을 안길은 제설봉사자 트랙터 241대, 읍·면 관용차 14를 동원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형 제설기가 도입됐지만 내 집 앞 눈치우기에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시청 태권도팀과 간담회 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과 간담회를 마련해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은 계약만료로 4명의 선수와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이 5명의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2025년 을사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동계시즌을 잘 준비해 올 한해 부상없이 좋은 성적을 거둬 김제시의 위상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대회에 출전해 노력하는 만큼 김제시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은 지난 1998년 창단했으며, 천병열 감독을 중심으로 서동욱 코치와 주장 백선경 선수 외 7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지난해 7개 대회에 출전해 1개의 은메달과 5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며 김제시의 위상을 높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농관원, 농업경영체 대상 양파·마늘 변경 신고제 운영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 31일까지 신청·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사무소장 조성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조성희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적용 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고창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98종 1093대) 전체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이밖에도, 적기에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농업기계 8종 54대를 구입해 최적의 영농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한 드론, 굴착기 등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교육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 경영비 절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 집중호우, 폭염 피해로 농산물 생육부진 현상이 심화돼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촌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청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특화사업 등 논의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석)가 지난 7일, 2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사업 및 특화사업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사협은 올해 위기가정에 긴급생계비(난방비, 의료비 등)를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영양 및 건강을 위한 식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설맞이 떡국 꾸러미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석 위원장은 "탄핵정국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은데, 청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하반기 특화사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2개소 진행…군 단위 '유일'

고창군이 202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대산연합의원, 현대의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서는 지난해 대산연합의원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현대의원이 추가 선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내 군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해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등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2회 방문한다.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정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개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시, 민생안정금 30만원 지원

민생안정 긴급대책 편성…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 충당
시민 1인당 30만원 설 명절 전 남원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

남원시가 탄핵 정국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어려울 때 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8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 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공되며,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한편 이번 232억원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남원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발로 뛰는 행정'…전 마을 방문한다

내달 13일까지 320개 전체 마을 방문…군민 밀착 소통으로 맞춤형 발전 모색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온 최영일 순창군수가 2025년에도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한다.

특히, 민선 8기 3년 연속으로 시행하는 이번 마을방문은 지난해보다 3개 마을이 더 늘어난 320개 전체 마을로써, 소외될 수 있는 오지마을과 고령화 마을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층 강화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8기 3년 연속으로 시행 중인 마을방문을 이달 8일부터 실시해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8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마을방문은 각 마을의 주민들과 밀착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 현안사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실무진과 논의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의 기초 인프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 581건의 건의사항 중 296건을 완료하고 60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3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마을방문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순창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마을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읍면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작물재배기술·방제 등

완주군이 오늘부터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월 13일까지 1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식량작물분야(벼, 감자, 콩 재배기술), 채소분야(고추, 양파, 마늘, 딸기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과수분야(배, 사과의 주요재배기술)다.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현장수요에 따라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강사는 조명철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장, 송장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농업연구관, 권순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농업연구관, 한원영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농업연구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대거 포진됐다.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인육성팀(290-3276)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을사년 새해 농업의 시작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여성행복도시 비전 실현

남원시는 8일 시청 중앙 현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시민참여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남원시를 비롯한 25개 지자체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지난 12월 16개 지자체에 대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지정에 성공한 남원시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더 행복한 남원을 비전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제막식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정을 발판삼아 지역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성평등 실천에 노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노인회 남원지회,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8일 개최, 노인일자리참여자 750여명 참석…안전교육도 실시

남원시는 8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회장 곽철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수행하는 11개 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철곤 지회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의 새해인사와 더불어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2025년 관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1,744개소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 장비 정비 등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안심도우미 사업단과 스마트경로당 사업 관련 프로그램 조작 방법 안내 및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사업단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군수, 화산·비봉 방문…지역 사업 계획 밝혀

유희태 완주군수가 8일 화산, 비봉면을 방문하며 연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경천저수지 생태자원 관광개발, 비봉 의병광장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화산면의 경천저수지는 현재 29억원을 투입해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3.6km의 탐방로와 40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승마장·역참문화체험관 운영도 활성화한다. 전국·지역 단위의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승마·역참문화체험을 활성화해 승마 인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봉면은 비봉 의병광장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해 호국성지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의병광장에는 추모탑, 추모의벽, 추모광장, 휴게공단 등이 조성된다. 호남 대표 천주교성지인 천호성지도 100억 원을 투입해 종교 역사자원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나간다. 특히, 양 지역 모두 주민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진행된다. 화산면은 올해 3월 착공해 2026년 개청, 비봉면은 올해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의회,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재고 요청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7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동환 의원은 함파우 아트밸리 내 대규모 시설 중심의 공간 조성은 막대한 조성금액 및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일자리 2,850개는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향후 남원시의 인건비 과다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산출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며, 시설 중심의 관광지 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남원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함파우 아트밸리 재원마련 계획 중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해 투자가치가 있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몰려들 것이라고 언급하며,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확실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완주군이 오는 27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8일 완주군은 지난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평균 5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 형태가 다양해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명확히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신고방법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진에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으면 된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민원은 최초 촬영사진, 중간 촬영사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의견이 있는 군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완주군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상반기 행정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행정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요령 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친절 응대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순창군의 행정인턴사업은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각 25명씩 총 5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참여 대상을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했으며, 원거리 근무지 지정을 통해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선발 범위를 넓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증진사업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놀이를 접목한 유·무산소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한 영양상담으로 '할 수 있다 건강한 체력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년도 '꿈자람 건강 JUMP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해 건강위험군 중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지역 거점공공병원에서 소아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본 결과 지방간, 간비대, 당뇨전단계 등이 나온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는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체력 측정을 실시한 후 주 2회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등 교육과 체험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실천력을 강화해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개선하고, 건강체중 유지로 자신감 회복 등 정신적·신체적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명성산업 정명오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 팔덕면 출신인 정명오 명성산업 대표가 8일 고향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순창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명오 대표를 비롯해 순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정명오 대표는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명성산업을 운영하며 PP마대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정 대표는 고향을 떠나 사업을 이어오면서도 순창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잊지 않고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특히, 이번 기부는 2년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을 몸소 보여줬다.

정명오 대표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 순창의 발전을 늘 기원하고 있다"면서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순창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순창=박지헌 기자

장수군,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겨울방학특강' 운영

장수군은 지역 청소년들이 겨울방학과 설 명절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청소년문화의집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놀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며 세계 전래놀이를 배우는 '지구를 생각하는 전래놀이' ▲책 언니와 함께하는 그림책 인문학 시리즈 3편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인권' ▲목공예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목공예로 공구 익히기' ▲설 명절 전통 간식을 만드는 '청소년 쿠킹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특강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장수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063-351-7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도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동아리'로 구성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변암면장, 경로당 순회 방문 "어르신들 최대한 지원 할 것"

장수군 번암면(면장 김성은)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부터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신년인사 및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방문에 나섰다.

번암 대표경로당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순회 방문은 오는 15일까지 관내 경로당 3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성은 면장과 번암면 3개 팀 팀장들은 함께 경로당을 순회하며 경로당 시설 내부 점검과 함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나눔으로써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한 어르신은 "행정에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김성은 면장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내는 주된 장소가 경로당인 만큼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욱 세세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용담면, 제29대 이임 제30대 면장 취임식 열려

진안군 용담면은 지난 7일 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제29대 이철민 면장 이임 및 제30대 노기환 면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용담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면민, 관계 공무원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임 이철민 면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더 나은 면정을 위해 함께 해주셨던 용담면 주민 및 이장님들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용담을 떠나지만 새롭게 근무하는 곳에서도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노기환 면장은 취임사에서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면민의 의견을 모아 오직 용담면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면장이 될것이며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소득보전 직불금 24억 첫 지급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농가당 기본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설 명절 전 지급

장수군이 민선8기 5대 군정 방침 중 하나인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기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개로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설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설 명절 전인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5,750명의 농업인에게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금' 총 24억원을 처음 지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민선 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수 거주자에 한해 농가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군비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전북도내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농가별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우리군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이번 직불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지방세외수입·징수 실적 '우수'

행안부 장관 표창·특별조정교부금 8백만원 확보…자주재원 확충·공정 세정 구현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을 주도한 우수지자체를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2024년도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 노력도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결과, 전 영역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시군 평가에서도 3위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것으로,

무주군은 2024년 하반기 중 지방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 공매실적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한 평가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읍면 합동 징수, ▲체납자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분할납부 유도 등의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 공매의 적극적 추진과 ▲체납 법인 합동 방문,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2025년 임실방문의 해, 천만관광 본격 도전

신년하례회서 임실시대 실현·안녕과 발전 기원…심 군수 "임기 내 완벽한 사계절 축제 만들 것"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와 천만관광 실현을 위한 당찬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에서 새해를 맞아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등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임실군민의 안녕과 임실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5 임실방문의 해를 기념해 새해 천만관광 임실시대 목표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임실 군정의 최대 목표 달성에 의기투합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했다.

새해 인사말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 새해 각오와 다짐 결의를 위한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하례회는 2024년 임실군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에는 더욱 큰 도약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군은 지난해 특색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틀간 열린 옥정호 벚꽃축제에 이어 5월에 3일간 개최된 오수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겨냥해 23일간 진행된 아쿠아페스티벌, 국화꽃과 함께 4일간 가을에 열린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5일간에 걸친 산타축제까지 계절별 릴레이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들 축제 기간에만 찾아온 관광객이 100만명에 달한 가운데 지난 한 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성수산, 사선대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만 888만명을 기록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는 2018년에 498만명에서 2023년 853만명, 2024년에는 888만명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2만6천여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 임실군의 이 같은 관광객 급증세는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일관되게 관광정책을 추진해 온 심 민 군수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남다른 열정이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이다.

군은 이 같은 기세에 힘입어 올해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성수산, 사선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확고히 구축해 '관광중심지 임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준비, 임실군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10년을 이끌 '미래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정해영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6일간 11개 읍면 방문해 민심 청취

'민심 듣고 민생 살리겠다' 슬로건으로 진행…"군민 목소리 군정에 반영하겠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11개 읍면을 순회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다.

전 군수는 ▲8일 진안읍, 안천면을 시작으로 ▲9일 백운면, 부귀면 ▲10일 마령면 ▲13일 정천면, 용담면 ▲14일 동향면, 상전면 ▲15일 주천면, 성수면을 찾는다.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초 방문에서 전 군수는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민생현장과 사업 현장 및 소득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인구감소·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협약도 추진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진안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추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관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읍·면·기관에서는 ▲관내 거주 미 전입자 및 생활인구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동참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및 추진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4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 등급 달성

행안부 실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국민 알권리 향상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기관별 전체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1곳, 우수 164곳, 보통 277곳, 미흡 2곳이었으며, 임실군은 군 단위 82곳 가운데 최우수 16곳에 포함됐다.

임실군의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총점은 기초 지자체-군 유형 평균 85.96점보다 7.36점이 높은 93.32점을 획득했고, 전년도 총점은 92.94점'최우수'등급으로 전년 대비 점수가 0.38점 상승했다.

임실군은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고객관리 등 다방면 활동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군은 보유 중인 정보의 양적 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의 충실성을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심 민 군수는"정보공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임실군 원문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무주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8억여 원 투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업경영체 등 대상…지역특화품목 육성 발판 기대

무주군이 올 한 해 농업 활성화와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억 9천8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그리고 2024년 7월과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H/W) 피해를 입은 농가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등이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 있는 무주군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축 나서

진안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평생학습협의회(의장 전춘성)를 개최했다.

관내·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학습 유관 기관, 타 시·군 평생학습도시 실무자 등 총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원들은 이 날 '24년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보고 및 평가를 통해, 2025년 진안군 평생학습 진흥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안건 심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평가로 예정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진흥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했다. 더불어 올해 6대 핵심과제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평생학습 ▲지역자원과 연계한 평생학습 진흥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지원 등을 실현해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구축으로 군민 역량 강화를 실현하며 전 세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 잡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지역 사회와 연계된 평생학습 유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거버넌스 조직을 기반으로 진안군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성처럼 관내·외 평생학습 유관 기관 및 도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해 지역 내 모든 군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 열어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길영, 민간위원장 변현섭)가 지난 7일 2025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방안 및 지역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중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순간은 지사면 협의체 위원의 가정에 새해를 맞아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이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 "새해 첫날에 지사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재경전북도민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추대

제20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자 유균, 정현숙 선정…전북인 명예·긍지 높여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사진)이 제14대 (사)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재경전북도민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25 신년인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박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임 곽 회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행동하는 전북, 특별한 내고향, 서로 사랑하는 전북인"이라는 목표 아래 출향 도민과 전북도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고향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회는 또 제20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수상자로 언론 부문에서 유균 극동대 석좌교수와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수 현숙을 선정했다.

'자랑스런 전북인 상'은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매년 각 분야에서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전북 출신으로서 전북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인사를 선정해 5백만 출향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재경전북도민회가 다수의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구랍 9일 '자랑스런 전북인상 운영 규정'을 제정해 도청 등 51개 기관에 수상 대상자 추천을 의뢰해 총 13인을 추천받아 유 교수와 가수 현숙씨를 선정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 등 이웃돕기 성금 220만원 전해

새해를 맞이해 고창군에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웃돕기성금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여러단체로부터 220만원상당의 이웃돕기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서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는 120만원,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 정진하 회장은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에 동참하면서 "새해에는 이웃들이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웃을 생각하는 기탁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고창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마동 새마을 부녀회, 독거노인 74세대에 떡국떡 전달

익산시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수연)가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마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지역 독거노인 74세대를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챙기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이수연 부녀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떡국떡을 전하며 홀몸 어르신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됐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철순 마동장은 "매년 설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김치를 비롯한 밑반찬 나눔, 환경정화 활동, 사랑의 밥차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인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관 전보
▲총무팀장 김영수
▲인사팀장 임선영
▲입법지원팀장 이정표
▲농업복지환경팀장 김은수

부안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둥이에 출생 축하금 전달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가족 초청…전달식 올해로 9번째 맞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부안군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계화 희망둥이 출생 축하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 2024년에 계화면에서 태어난 출생아 가족을 초청해 출생 축하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로 9번째를 맞았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을 십시일반 모아 축하금을 마련했다.

2024년 계화면에 출생 등록한 출생아 수는 5명으로 전달식에는 출생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을 축하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이 1명 태어나는 것도 소중한데 지난해에는 5명이나 태어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기쁜 날을 축하함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병무 주민자치위원장은 "아기 울음소리가 소중한 시기인 만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용진읍, 공무원·학생까지 연탄 1천장 전달

완주군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병오, 설선호)가 지난 7일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협의체 위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비롯해 학생 자원봉사자까지 3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 3가구에 연탄 총 1,0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연탄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회장 이종화)가 후원해 줬으며,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는 매년 용진읍에 1,000장 이상의 연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소병오 공동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빛나는수레마당 예술단, 군산에 2백만원 성금 기탁

빛나는 수레마당 예술단(단장 유빛나)이 7일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지난달 유빛나 단장 취임식을 겸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공연 당시 마련된 기금으로 겨울철 지역사회 온기를 전하고자 단원들이 뜻을 모았다.

유빛나 단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공연을 통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인 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아울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석 복지환경국장은 "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실천해 주신 빛나는 수레마당 예술단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추운 날씨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진안군 안천면 민·관, 한마음으로 모인 따뜻한 마음…400만원 쾌척

진안군 안천면 기관사회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8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장학금 400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안천면에서 열린 연초 방문을 맞이해 추진됐다.

기관사회단체는 각 단체별로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겨울 간식 바자회에서 얻은 성금을 내놨다. 전달식에 참여한 석우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안천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 지역 위한 나눔…수월포럼 (유)신진공업 각각 장학금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새해를 훈훈하게 밝히고 있다.

8일 수월포럼 회원 10명은 정읍시청에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마련돼 주위를 더욱 더 훈훈하게 했다.

수월포럼 관계자는 "정읍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감사하다. 해당 금액을 다시 지역에 환원해 상생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며 "지역의 인재가 바르게 성장하고 정읍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월포럼은 정읍의 따뜻함과 포용을 기반으로 모두가 상생하며 수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임이다. 현재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용지면 이장단협의회,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단협의회가 지난 6일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히 임기가 만료되는 다수의 이장들이 마지막까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는데 의미를 더했으며, 이장단협의회는 매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41개 마을의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강상문 이장 협의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장단협의회는 올 한해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과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一事一言〉

윤석열은 왜 '비상대권'이 필요했을까?(3)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둘째,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불평한 부분 역시, 알고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게 가속 급증해 2025년엔 670조 원 규모다. 2010년만 해도 290조대이던 것이 2011년 300조를 넘었고 2017년엔 400조를, 2020년엔 500조를, 2022년엔 600조를 넘어섰다. 동시에 국가부채는 2011년 420조, 2017년 660조, 2020년 840조, 2021년 970조, 2022년 1067조, 2023년 1126조로 급증했다. 나라 살림은 한마디로 '적자투성이',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다. '뇌란'이 없는 '정상'이라면, 잘못된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민생과 나라 발전'에 필수적인 것만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이게 나라 경영에 있어 책임성 있는 태도다.

셋째, '부정선거'가 그토록 의심스럽다면, 사전투표부터 검표에 이르기까지 보다 투명하게 보다 민주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여야가 협의해 찾으면 된다.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또 선관위 직원들 30여 명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나아가 '뇌란'이 없이 정상 상태의 고민을 한다면 중앙집권식,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함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진정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려 한다면 비록 장기적 과제이긴 하나 '전국 이장연합회'가 나라 전반을 운영하는 식이어야 한다.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도 있고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뇌란'이 발생하면) 아주 간단히 주민 소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것이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초들이 스스로 권력('민중의 힘')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의 민주주의에 오히려 걸맞다. 이장이나 통장 정도의 선출 과정에서는 (공천을 위한 뭉칫돈이 오가는) 부정부패도, VIP1~2의 전화나 명태균 식 여론 조작도 모두 불필요하다.

곰곰 생각해 보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조선 이후 일제와 미군정, 그리고 그 뒤 70~8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늘 '강자동일시' 심리로 센 놈에 빌붙은 기득권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 민중 위에 군림해 왔다. 그 사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 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여전히 내실은 없다. 민주주의도 수시로 '퇴행'을 반복하고(상대적으로 나은 민주당 정권 역시 예외 아님), 사회경제 불평등은 심화하며, 그 사이 노동소외, 자연 생태계 훼손, 기후위기 등이 심화한다.

최근 검찰 발표(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유난히 "나라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찰 발표에서조차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관여되었다는 방첩사 발 의혹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었다! 향후 이를 파헤쳐야 한다.) 비상대권이란 국가의 비상사태 시 비상조치(예: 계엄)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나 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결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태의 진실은 윤석열과 김건희 등이 '국정을 맘대로 주무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2025년 통일대통령 김건희' 같은, 망상에 불과한 목표를 세워 놓고, 그걸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 인식하는 행태는 '뇌란'(중독행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뇌란'의 병을 앓는 자들은 서둘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황교안과 윤석열을 통해 드러난, 스스로 저지른 부정부패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정치적 투사'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원래 심리학에서 투사(projection)란 자신의 결함, 감정, 태도를 타자에 전가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식 중독 시스템의 '정치적 투사'들은 "선거부정" 외에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 훼손", "불법 자행", "전쟁(남침) 조작" 등이다.

따라서 '나라 정상화'를 위해선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 등만 아니라, '뇌란당'인 국힘당도 해체해야 한다. 물론, '헤쳐 모여'하며 간판만 바꿔 다는 걸 용납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종교 등 각 분야에서 '읍참마속'의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황교안에게 반사(mirroring)한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부정선거와 내란은 팩트다. 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생동하는 과정이니, 벌거벗은 임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서남대 폐교 당시 가뜩이나 어렵던 남원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대학가 주변은 물론 시내의 음식점까지 영향을 받았다. 당시 서남대는 지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대학 덕분에 젊은 층과 외지인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쓰는 돈은 지역경제의 피를 순환시켰다. 이처럼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남원시가 폐교된 서남대를 '전북대 글로컬캠퍼스'로 되살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대학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역 노동시장을 활성화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 기업과 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혁신을 도모한다. 또한 대학은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킨다. 대학병원도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렇다면 대학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나 연구와 기술 개발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제적 효과를 제외하고 고용과 소비창출 효과로 한정해 전북대 사례를 보자. 전북대는 대학병원 포함 교수, 직원, 조교 등 약 8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전북자치도 직원 5천5백명과 전주시 직원 2천3백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여기에다 전북대는 2만1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상쇄 또는 막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 구성원들의 연간 소비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면 대학병원 포함 교직원은 3천196억원, 재학생은 1천574억원 등 연간 총 4천770억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연간 소비창출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각각 3천883억원, 2천46억원 정도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전북대의 소비창출 효과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진앙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다. 1970년대 초반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수는 24년 24만여 명으로 줄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0만 명에 달했다. 반면에 N수생을 포함한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지역대학들의 몰락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여년 후 지방대학의 6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지역의 경우엔 20개 대학 중 30%인 6개 대학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단순히 대학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것은 이미 서남대 사례에서 증명됐다. 지역대학이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친다.

▲오늘의 시

겨울 강가에서 / 안도현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원광대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고 1985년 이리중 국어교사를 하다 전교조에 참여해 해임됐다. 1994년 장수 산서고등학교로 복직했으나 1997년에 퇴직 후 전업작가로 활동했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우석대 문창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우석대를 떠나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자리를 옮겼고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 예천으로 돌아갔다.

문화재열전

선운사 석씨원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2025 10대 역점시책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 자세로 김제시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새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김제 100년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가슴 벅찬 도전을 이어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 김제시 최초로
▲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
▲ 망해사 국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관할 결정
▲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창립총회 개최 등
김제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2025년 시정 슬로건을'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김제시의 10대 역점시책들을 살펴본다.

▲ 교통사고 없는 등하교길 캠페인

▲ 김제상공회의소 창립 총회

△새로보미축제

▲새만금 김제 희망 축제

△김제시 특별한 산책

▲ 천사무료급식소 봉사

◆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첨단산업도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특별한 김제 100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백구일반산업단지(제2특장차)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내실있게 조성해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앵커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특화된 신규 에너지원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소 생태계 로드맵을 구축해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 연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

시민곁에 든든한 일자리 허브인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일자리 플랫폼 고도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상반기 내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으로 김제시 특색에 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경영 지원사업,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 빈 일자리 대책반 운영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농업도시

대한민국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기계 실증,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 첨단 농기계 산업 집적화 등을 포함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한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K-종자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 신산업 거점, 새만금 해양항만 중심도시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SOC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사업 추진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 새만금 혁신성장의 핵심축이 될 배후도시 용지가 산업용지 확대 및 조기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누구나 살고싶고 안전한 명품힐링도시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은 주거·문화·복지가 복합된 인구정착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검산·신풍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김제시 동부권을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시키고자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내권 원도심은 그린시티로 육성하고, 공영주차장 지속 확대,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추가 도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 미래를 키우는 김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화상영어 홈클래스 지원사업, 예체능분야 지역학교 지원사업 등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김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인성교육 마음학교, 소규모 다문화 국제학교, 종자와 특장차를 연계한 교육 운영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 폭넓고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체험형 이동버스를 활용한 달리는 모두 배움터 사업과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디지털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두가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민 중심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기로 했다.

◆ 김제만의 매력을 살린 문화체육관광도시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단계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김제국가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일상이 축제가 되는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 해 나아가겠다.

특히,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문화로 승화시킨 김제 새로보미 축제는 환경부 주관 정부기념일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유치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전지훈련센터 등을 조성하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 청년이 꿈꾸고 정착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과 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지역정착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두배적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 및 출산 장려를 위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산후조리경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도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외국인주민과 동반성장하는 외국인친화도시

올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고질적인 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 F-4-R)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E-7-4)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국적취득비용 지원,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추진 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도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이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새만금 지평선소식지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서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튜브·인스타 등 SNS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여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정 홍보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과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제=온봉기 기자